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에 오순민 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방역총괄과장에 오순민 전 검역정책과장이 방역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장, 축산물기준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 오순민 과장

한국양계농협

한국양계농협 통합 11주년 기념행사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지난 3일 한국양계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본점 임직원 및 수도권 지역의 지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1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국양계농협은 2003년 11월 3개 농협(서울경기양계농협, 대구경북양계농협, 광주전남양계농협)이 통합하였으며,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원과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오늘날 건실한 조합으로 크게 성장 하였으며 통합 이후 조합사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 5월말에는 신용사업상호금융예수금 9천30억원을 달성하고, 내년도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정길 조합장은 모든 임직원은 조합원에 대해 최대한의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 여행 축산관계자, 자동입국심사 가능해진다

**귀하는 축산관계자입니다.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의전화 : 1588-9060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12월 1일부터 가축 사육 농장주(동거가족 포함),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계자가 해외 여행 후 법무부 입국 심사시 “자동 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축산관계자는 해외 여행 후 입국시 법무부 입국 심사관이 축산관계자임을 확인하고 검역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 입국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규제완화 요구 및 2011년 7월부터 추진해 온 「축산관계자 국경검역 관리 시스템」의 운영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규제완화 요구와 축산관계자의 검역신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으로 높은 검역 신고율(99.6%)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자동 입국 심사” 이용 제한 조치를 개선하는 것이다.

“철저한 차단방역 다짐 결의” 민관 합동 방역 홍보 캠페인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이지우)는 지난 7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서부축산물검사소(소장 최권락)와 합동으로 경기도 부천에 소재



한 부천 축산물공판장(도축장)에서 가축운송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독실시 요령 홍보와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다짐하고 결의하는 민관 합동 방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전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형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축운송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올바른 소독이 중요한 시점에서 도축장으로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시 방역 다짐 결의대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일 검역본부 운동장에서 '시 방역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 방역다짐 결의대회는 현재 전남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조기 종식을 위해 검역본부 직원들의 방역결의를 높이고자 개최되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본부 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방역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 방역 다짐 실천 결의 구호를 제창함으로 시 방역 결의를 다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덴마크와 동물보호 복지 업무제휴 의향서 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0일 남산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덴마크 푸드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석하여 덴마크 수의식품청(부청장 아넬리세 핑거)과 업무제휴 의향서를 체결하고 동물보호 복지분야 및 동물질병 관리, 검역분야 협력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업무제휴 의향서에 따라 우리나라와 덴마크 상호간 동물질병 관리, 검역 및 동물보호 복지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시켜 양국의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년 가금질병 분야별 협의체』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6일 가금질병 내·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가금질병 분야별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그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질병뿐만 아니라 최근 현장에서 질병 발생 피해가 다발하고 있

는 호흡기 질병과 면역억제 질병에 대한 현장맞춤형 대응연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최근 양계 현장에서 마이코플라스마 시노비아(MS), 닭 호흡기 기관지염(IB), 닭 후두기관지염(ILT) 등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질병에 대한 실태조사, 병원체 유행 감시 및 특성 분석, 예방백신 등 질병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연구 추진을 제안하였다. 또한, 최근 닭전염성 빈혈, 콕시듐 등 면역억제 질병의 감염으로 가금아데노바이러스 등 2차 감염 피해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어 면역억제 원인 구명 및 효과적인 예방 기술 개발 등 면역억제 성 질병에 대한 피해예방 연구 추진을 제안하였다.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 평가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1일 검역본부 대강당(1층) 세미나실에서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의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부 3.0」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담당자와의 소통 강화 및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 민원담당자를 “1일 직원”으로 임용하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 근무토록 하는 제도로서 생물학적제제 분야, 화학제제 분야, 의리기기분야 등의 민원 담당자와 1:1로 업

무를 수행한 바 있다(총8회20명). 전화 문의, 신청 서류 등의 검토 등 민원업무 인력충원의 필요성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기술검토 부서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민원처리기한 알람” 기능 등의 추가 및 업로드 서류 확인 방법 개선 등 “동물용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위성한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참석자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feed-back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방역 직원들 격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주호 본부장은 지난 10월 31일 충남 아산, 10~11일 전남북 지역 등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시 조기검색을 위해 철새모획, 시료채취, 농장방역실태점검 등 현장방역 전념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 이주호 본부장

경기도본부, 전화예찰요원 축산위생연구소 견학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사무국장 노정승)는 지난 10월 27일 전화예찰요원들의 농장예찰업무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를 방문하여 전문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은 전화예찰요원 28명이 참여했으며, 강의는 연구소 박경애 팀장이 주요가축질병에 대한 임상증상 특징을 보다 간결하게 설명하였으며, 축산농가와의 전화예

찰 시 임상증상 예찰방법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또한, 정밀진단팀 검사실을 방문하여 검사 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FTA국회비준반대 비상대책위원회

FTA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FTA국회비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창호)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정협이체 합의사항

에 대해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성엽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代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代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이 서명을 했다. 10가지 합의사항은 ▲정책자금 금리인하,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 ▲도축(도계)장 전기요금 인하, ▲사료직거래 자금 확대,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상향, ▲국산우유 소비 확대 방안,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지원 대책, ▲FTA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 연장,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대안 마련, ▲12월 2일까지 비준동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축산단체장들은 15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쳤으며 비대위도 함께 해산키로 했다.

청정계비상대책위원회

청정계부도 규탄집회 개최



청정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범철)는 지난 13일 경기도 양주소재 청정계도계장에서 청정계 부도사태와 관련하여 계약사육농가의 규탄집회가 열렸다.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계약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존권이 걸려있는 초유의 사태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집회의 참가한 농가들은 청정계(회장 장세평)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울분을 금치 못했고 청정계측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육비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게는 이번 사태로 인해 농가피해가 전원 구제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 농가 사육비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청정계는 지난 7일 부도로 계약사육농가 100여명에 사육비 미지급 금액은 현재까지 파악해본결과 약 50억원에 이른다. 이날 규탄집회를 마치고 별도 간담회를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에 홍범철 씨(경기도 양주)를 선출하였으며 부위원장 및 운영진을 선출하는 등 청정계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롭게 출발 하였다.